

 해양수산부		<b>보도자료</b>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배포 일시	2021. 6. 22.(화) 총 2매(본문 1, 참고 1)		
담당 부서	지도교섭과	담당자	• 과장 임태호, 서기관 김용태, 주무관 태종완 • ☎ (044) 200-5569, 5564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담당자	• 과장 허남근, 지도계장 김동원, 주무관 유대근 • ☎ (064) 780-2421, 2422, 2429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가능			

## 해양수산부, 해상 표류어선 긴급구조

### -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12호 사고해역 급파, 예인 중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제주 남방 약 254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근해연승 어선 K호(제주선적, 29톤, 승선원 10명)의 구조 요청을 받고, 국가어업지도선을 급파하여 해당 어선과 선원을 안전하게 구조한 뒤 예인 중이라고 22일(화) 밝혔다.

제주도 한림항에서 출항한 K호는 6월 20일(일) 02:37경 제주도 남방 254km 해상에서 스크류에 부유물이 감겨 어선을 정상적으로 운항할 수 있는 없는 상태가 되자 구조요청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K호는 우선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 H호의 도움을 받아 최초 표류지점으로부터 약 80km를 제주 방향으로 북상한 상태였다. 남해어업관리단은 제주 일원에서 임무수행 중이던 무궁화12호를 사고해역으로 급파하였으며, 6월 21일(월) 21:20경 어선 H호로부터 K호를 인계받아 선원과 선체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K호를 구조하였다. 무궁화12호와 K호는 22일(화) 14:00경 표류 어선의 정박지인 제주 한림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박영기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조업 중인 어선에서 부유물 및 폐어구 등에 의한 스크류 감김 등의 사고가 종종 발생하는 만큼, 선박근무자의 철저한 전방주의와 출어 전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